

'캐리언니' 코스닥 눈앞... 유튜브기반 기업 새역사

캐리소프트, IP 사업기반 특례상장 외부전문기관서 A, AA 등급 받아 오늘 상장심사… 내달 중 상장 전망 하반기 미국에 현지법인 설립 목표

어린이들의 대통령 '캐리언니' 캐리소프트가 사업모델기반 특례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캐릭터를 기반으로 한 지적재산권(IP)이 주요 사업모델로 '한국의 디즈니'를 목표한다. 국내에서는 유튜브기반 기업의 첫 상장사례가 될 전망이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캐리소프트가 오는 4일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를 거쳐 이르면 내달 중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다. 캐리소프트는 구독자 200만명을 보유한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이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다.

지난해 캐리소프트는 3억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 공격적인 사업 확대와 관계기업 지분가치 하락이 주요 원인이다. 다만 매출액은 100억원으로 전년보다 55.4% 증가하는 등 외형 성장을



이뤄냈다.

때문에 캐리소프트는 미래 성장성은 높지만 아직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지 못한 기업에 상장 요건을 완화해 주는 '사업모델기반 특례상장'을 통해 코스닥 입성을 도전한다.

지난 2014년 설립된 캐리소프트는 어린이 장난감을 리뷰하는 유튜브 채널인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로 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캐리'라는 캐릭터 자체가 사업성을 가지게 되면서 케빈, 엘리, 루시 등 캐릭터를 잇달아 만들었고 주요 사업은 유튜브가 아닌 캐릭터를 활용한 지적재산권(IP)이 됐다.

업계에서는 무리 없이 거래소의 상장심사를 통과해 상장을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한다. 사업모델 특례상장은 외부 전문기관에게 각 A, BBB 이상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캐리소프트는 A, AA 등급을 받았다.

거래소에서 상장심사를 담당하는 관계자는 "캐릭터의 지적재산권을 통해 사업을 다변화할 수 있는 게 장점"이라면서 "적자 기업이지만 사업 모델 성장성을 종점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캐리소프트의 목표는 '한국의 디즈니'다. 캐리라는 캐릭터의 탄생이 4년이 채 안된 만큼 향후 성장성이 높게 평가받을 수 있다.

희망 공모가를 기준으로 상장 후 시가총액은 100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디즈니의 시가총액은 약 190조 원이다. 일단 캐리소프트의 목표는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가 1조 이상인 스타트업 기업)이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해외시장도 적극 개척하고 있다. 3년 전 중국에 진출했고, 2년 전에는 베트남까지 발을 뻗었다. 중국시장에서는 이미 흑자를 내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는 유쿠, 아이치이, 텐

센트 비디오 등 중국 3대 플랫폼에 모두 '캐리와 친구들'의 영상을 제공하고 있다. 중국 스마트폰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동영상 앱에서 캐리와 친구들의 영상을 볼 수 있다.

이번 상장은 다변화한 사업의 안정화, 본격적인 해외진출 등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캐리소프트의 사업영역은 유튜브 플랫폼을 벗어나 교육 콘텐츠, 모바일 게임, 키즈카페 등으로 확장됐다. 올 하반기에는 미국 진출을 위해 현지 법인 설립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캐리소프트의 상장주관사는 미래에셋대우다. 카페24에 이어 기술특례 전문 주관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미래 성장성을 담보로 상장하는 기업을 주관하게 되면 기업 가치 평가부터 적정 공모가 산출까지 상당한 전문성이 필요하다"면서 "향후 이러한 기업의 상장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돼 각 증권사가 유망한 기업을 발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KT 아현화재 이후… ‘테러에도 이상 무’ 달라진 통신재난 대응

과기부-KT-소방서 등 합동훈련
초동 대응, 긴급복구 절차 점검

지난해 11월 24일 아현지사 통신구화재가 일어난 지 8개월 여 시간이 흘렀다. 이 화재로 서울 종구·용산구·서대문구·은평구·마포구 일대를 비롯해 경기도 고양시 일부 지역까지 통신장애가 발생하며 '통신대란'을 일으켰다.

KT 측에 따르면 피해 발생 규모는 총 469억원으로 추산된다. 통신망은 우리 사회 곳곳에 모세혈관처럼 자리잡아 사고가 발생하면, 곧바로 국민들의 일상 생활에 혼선이 일어날 수 있다. 이로 인해 통신망 관련 사회적 재난에 대한 매뉴얼과 대응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문제는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종로구 소재 KT혜화국사에서 통신재난 대응훈련으로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KT혜화국사 통신구에 테러가 발생해 유·무선 통신망이 두절된 상황을 가정해 과기정통부와 KT가 동시에 대응하는 내용을 진행됐다.

과기정통부, KT, 국정원, 소방서, 경찰서 등 통신재난 대응 관련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훈련을 시행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장관과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도 훈련 현장을 참관해 통신재난 대응체계 점검에 나섰다.

정부는 통신구화재 이후 지난해 12월 국정현안점검회의를 통해 통신재난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대책 수립에 나섰다. 후속 조치로 통신망 이원화 추진, 이용자 보호체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방송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을 변경했다.

이번 통신재난 훈련은 그간의 개선사항이 실제 현장에 적용됐는지 확인하기



KT직원들이 혜화국사에서 실시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 '2019년 통신재난 대응훈련'에 참가해 피해 입은 통신 시설 복구를 진행하고 있다. /KT

위해 마련됐다.

우선 통신재난 상황발생 단계에서 3개 시·구·군 이상에서 통신재난 발생 시 경보발령 기준이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강화됨에 따라 통신사 내 보고, 기관 간 상황 공유, 초동 대응 등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했다.

긴급복구 단계에서는 통신망 이원화를 반영한 우회 통신경로 소통 작업, 이동기지국 차량 배치 등 긴급 복구 절차를 점검했다.

통신 재난 시 이용자가 다른 통신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사 간 협력체계가 작동하는지도 확인했다. 이를 위해 통신사 간 와이파이 개방을 했고, 이동통신 로밍서비스는 가능으로 실시했다. 특정 통신사에 통신 재난이 발생하면, 이용자는 다른 통신사의 통신망을 통해 음성, 문자와 같은 통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동통신 3사는 연말까지 이동통신 로밍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통신재난 시 이용자 행동요령 배포, 소상공인의 결제서비스 지원을 위한 롱텀에볼루션(LTE) 라우터 배포 등도 점검했다.

아울러 KT는 이날 훈련장에 다양한 재난 대응 솔루션과 활용 방안을 소개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김나인 기자 silknni@

유통가, 충성고객 위해 총성없는 '페이전쟁'

유통업계가 적극적으로 간편결제 서비스를 확장·강화하고 있다.

간편결제는 신용카드나 계좌번호와 같은 결제정보를 모바일기기나 PC에 미리 등록한 뒤 간단한 비밀번호 입력이나 지문인식만으로 상품·서비스 구매를 완료할 수 있게 만든 결제방식이다. 간편결제 이용자가 늘면서 '현금 없는 사회'에서 이제는 '지갑 없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간편결제 서비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간편결제 서비스의 전체 결제금액은 80조 1453억원으로 2016년(26조 8808억원) 대비 3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이용 건수 역시 23억 8000만건으로 2년 전(8억 5000만건)의 2.8배 수준으로 성장했다. 전체 가입자 수(중복가입 포함)는 1억 7000만명으로 집계됐다. 이용건수와 금액 모두 2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유통업계의 대표적인 간편결제 서비스는 SSG페이와 L.pay(엘페이)가 있다.

SSG페이는 선불(SSG머니), 후불(신용카드), 직불(계좌결제) 세 가지 결제 방식을 모두 탑재한 간편결제 서비스다. 바코드 스캐닝 한번으로 결제와 동시에 할인 적용, 포인트 적립, 영수증 발행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하다.

SSG페이는 출시 이후 지난 3년간 연 평균 148% 성장했으며, 평균 월 결제액은 17년도 128%, 18년도 170% 성장하는 등 해마다 놀라울 정도의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다.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이마트24, 프리미엄 아울렛, SSG.COM, 스타벅스 등을 비롯해 가맹점 수만 3만 6000개에 달한다. 롯데멤버스의 엘페이도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엘페이는 롯데그룹 유통사와 KGO이니시스 등 10만여 온·오프라인 제휴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다.



고객이 SSG페이로 상품을 구매하고 있다. /SSG페이

간편결제 이용자수가 늘어나는 이유는 고객 입장에서도 얻는 혜택이 크기 때문이다. 제휴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적립 포인트를 더 많이 쌓을 수 있고, 각 사가 운영하는 다양한 서비스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최근에는 생활에 밀접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SSG페이의 경우 서울시 세금 납부 서비스 사이트인 'ETAX'와 세금 납부 모바일 앱인 'STAX'에서 서울시의 재산세, 주민세 등 모든 지방세와 세외수입고지, 상하수도 요금을 납부할 수 있다. 아파트 관리비 납부 서비스인 '아파트아이'와의 제휴를 통해 아파트 관리비 결제 서비스도 제공한다.

문준석 신세계 I&C 플랫폼사업부장은 "유통업계가 간편결제 서비스를 강화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고객에게 보다 편리한 쇼핑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충성고객 확보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등록해놓은 결제 시스템으로 계속 사용하게 될뿐더러 포인트 적립 혜택도 크기 때문에 소비자 만족도도 높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